

학회 60주년 기념 축하

박성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야말로 지축을 흔드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려는지 노심초사 속을 살아왔다. 그러는 동안 학회는 야심차게 기획했던 제주도에서의 학회 환갑잔치를 포기하고 결국 사상 초유의 Zoom Meeting으로 환갑을 기념하게 되었다.

이런 혼란 속에 며칠 전 월요일에는 중국 내륙지방에 pest가 퍼질 조짐이 나타났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런 소식은 당장 내 젊은 날 실존주의 사상가로 유명했던 카뮈(Albert Camus, 1913-60)의 소설 『페스트(*La Peste*, 1947)』를 떠올려 주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이며 사상가로 그 시절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80) 등과 함께 한국 젊은이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서양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들을 생각하며 내게 떠오르는 것은 1950-53년 한국전쟁의 대재난을 겪고 태어난 이범선(李範宣, 1920-81)의 소설 “오발탄”이다. 이 작품이 나온 것은 1961년이니 우리 학회가 탄생한 것과 거의 같은 때라고 할 만하다. 그것은 아마 당시 유행하던 실존주의의 한국적 표현이었다고도 할 만하지 않을까?

그로부터 반세기하고도 10년이 더 지난 오늘의 한국, 아니 세계는, corona virus의 만연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류는 우리가 다 잘 알 수도 있는 1665-66년 영국 런던의 대화재와 역병을 연상시켜 준다. 그 때 Cambridge대학을 막 마친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은 휴교에 들어간 대학을 떠나 고향에서 1년 반을 격리되어 지내게 된다. 그런 격리된 삶 속에서 뉴턴은 프리즘을 가지고 즐기고, 망원경을 만들어 보았으며, 2항정리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0.42.3.593>

†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1996-1998 한국과학사학회장, parkstar39@naver.com

를 연구하고, 미적분의 길을 찾아 나갔다. 천체의 운동은 그 질량과 상호 거리에 관계되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 수학적 관계를 밝히기도 했다. 그를 만고의 과학자로 이름 남겨 준 “만유인력”의 법칙도 이 재난 속에서 발견되기에 이른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것은 실존주의 시대에 시작된 한국과학사학회의 60년을 기념하는 몸짓이다. 그날 지금 여기 계신 송상용 학생은 당대의 유행이던 실존주의에 휘둘려 “오발탄”의 주인공 처럼 “가자!”를 거듭거듭 외치는 대신, 과학의 역사에 눈을 뜨고 그 새 길을 열고 있었다.

크고 작은 재난은 인류 역사에 쉽 없이 나타나고 또 사라져갔다.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자고 다짐하며, 오늘 우리의 모임을 축하하고 싶다.

<추가> 여기까지가 원래의 잔치 날 축하였다. 그 글을 제대로 책으로 묶는다니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회고 자락이 있다. 1980년 전후부터 거의 20년 동안 학회가 매달렸던 사업이라면 “과학사의 대중화”였다. 코페르니쿠스와 다윈, 인쇄술, 자동차, 그리고 첨성대에 이르는 여러 가지 대중적 관심거리를 내세워 학회 활동이 신문 방송의 주목을 받았고, 송상용 교수는 그 시기 “한국 과학사 운동의 기수” 노릇을 훌륭하게 해냈다.

그 열매로 한국과학사학회는 역사학계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 해마다 열리는 전국역사학대회의 주최 학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는 정식 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이런 반침이 결국 과학사를 한국 대학의 정식 학과로 만들고, 그 성장의 결실로 지금 많은 과학사 학자들이 한국 학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학회 60년을 축하하며 그들의 건투를 기대한다.